

OUTDOOR & TREND | 고어코리아와 함께 하는 안전산행 캠페인

얇은 옷 겹쳐 입기...가을철 안전산행의 정석

기온 따라 '레이어링'으로 체온 유지
변덕스러운 날씨 탓 기능성 의류 필수
만일의 사고 대비 '119신고' 앱 유용

고어코리아, 매주 안전 캠페인 개최

"아파빠야 안다"는 말은 진리다. 아파빠야 건강의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우리들은 때때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공기의 소중함을 높은 산 정상에서 거진 숨을 몰아 쉴 때야 느끼게 된다. 물 한 모금의 소중함을 산에서 땀을 흘리며 흘린 후 만나게 되는 갈증 앞에서 뼈저리게 실감하게 된다.

1년 중 가장 산행을 하기 좋은 가을이다. 산을 오를 때 물과 공기만큼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산 좀 다니다"라고 자부하는 '산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안전산행의 조건이 있다. 오늘의 산행을 내일도 즐기 위한 보험과도 같은 고수의 노하우는 어떤 것일까.

●가을은 산악사고의 계절...뱃보다 기능 우선

산악사고는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소방방재청이 최근 3년간 국립공원 산악 안전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악 안전사고로 총 1383명(사망 67, 부상 1316)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월별로 보면 단풍철 행락객과 등산객이 크게 증가하는 10월에 241명(17.4%)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11월도 135명(9.8%)이나 된다. 선선한 가을 날씨와 단풍 덕에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는 것이다.

부상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골절 409명(31.1%), 고립·실종 213명(16.2%), 상처 202명(15.3%) 등으로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가 이유였다.

산행은 평소 익숙하지 않는 지형을 오르게 된다. 열량의 소모도 크다. 따라서 자신의 체력에 맞는 산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산에서 입는 옷은 패션보다 기능이 우선이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아웃도어 전용 기능을 갖춘 옷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옷의 경우 두꺼운 옷 한 벌을 입는 것보다 기능성 소재의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



고어코리아의 안전산행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등산객들. 고어코리아는 올바른 산행문화 보급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지난해 겨울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전국 4개 명산에서 안전산행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주는 것이 고수의 노하우다. 산의 날씨와 도시와 완전히 다르다. 특히 가을은 산에서 사계절의 기후를 모두 경험하게 되는 계절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입었다 벗는 레이어링(Layering)을 통해 기온과 체온 변화에 따라 쾌적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경우는 더욱 그렇다. 땀과 열기를 바로 배출하고, 외부의 비바람으로부터 몸을 막아 정상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고어텍스 재킷과 같은 기능성 의류와 신발을 갖추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중요한 팁 하나.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소방방재청이 운영하는 '119신고' 앱을 알아두면 좋다. 신고자의 GPS 좌표를 인식하는 기능이 있어 산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고어코리아, '안전산행 캠페인' 눈길

고어코리아는 지난 10월 5일부터 주말마다 전국 4개 산에서 '고어텍스 안전산행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다. 11월 17일까지 진행한다.

■고어코리아와 함께하는 안전산행 십계명

1. 각 산행로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지역 날씨를 꼼꼼하게 확인한다.
2.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곳은 오르지 않는다.
3. 체온 유지 및 건강을 지키기 위해 등산 장비와 의류를 휴대하고 통신수단을 확보한다.
4. 등산 중에는 술을 절대 마시지 않는다.
5.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지나는 곳으로 되돌아가서 위치를 확인한다.
6. 산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챙겨서 하산한다.
7. 자연물은 감상만 할 뿐 만지거나 꺾지 않는다.
8.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불을 피우는 행위나 취사는 허용된 장소에서만 한다.
9. 야생 동물을 보면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한다.
10. 나와 다른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

양행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한국 게임시장 10조원 돌파 전망

콘텐츠진흥원 '2013 대한민국 게임백서' 발간
모바일게임 약진·수출액 증가...시장규모 확대

올해 한국 게임시장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3일 국내외 게임시장 동향을 분석한 '2013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2011년과 비교해 10.8% 성장한 9조7525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2013년에는 10조원을 돌파하고, 2015년에는 12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게임시장은 온라인게임이 선두로 가는데 모바일게임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온라인게임은 6조7839억원의 매출을 달성, 전체 게임시장의 69.6%를 점유했다. 모바일게임은 8009억원으로 전체 게임시장의 8.2%를 차지했다.

수출액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게임 수출은 26억3891만 달러로 2011년 대비 11% 증가했다. 온라인게임은 전체 게임 수출액의 91.4%(24억1085만 달러)를 나타냈고, 모바일 게임은 1억6898만 달러로 6.4%를 차지했다. 반면 수입은 2011년 대비 12.6% 감소한 1억7913만 달러에 그쳤다. 2012년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게임시장(70억6300만 달러)은 세계 게임시장(1117억5000만 달러)에서 6.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한편, '2013 대한민국 게임백서' 24일부터 시종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 지역서점을 통해 판매된다. 김병근 기자

경제 브리핑

블랙야크, 조인성 다운재킷 '에어로원' 출시

블랙야크가 일명 '조인성 다운'으로 불리는 '에어로원(B5XXK3·사진)' 다운재킷(64만원)을 출시했다. 따뜻한 공기가 다운 속에 계속 머물도록 설계된 '에어로원'공법이 적용 돼 가벼움과 보온성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이 기술을 적용한 '에어로원'은 입었을 때 팔을 감싸며 마치 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에어로원' 출시에 맞춰 선보인 TV CF에서 전속모델 조인성은 반팔 티와 '에어로원' 재킷 한 장만으로 파스한 겨울 스타일을 연출했다. 블랙야크는 '에어로원' 재킷을 포함해 에어로원 기술을 적용한 8종의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KT&G·소망화장품, 31일까지 신입사원 공채

KT&G(사장 민영진)와 계열사 소망화장품이 31일까지 2013년 신입 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이번 공채의 특징은 '인성중심의 열린 채용'이다. 지원자격에서 영어점수나 학점 등 소위 '스펙'을 완전히 배제했으며, 역량기술펠과 심층면접을 통해 잠재력있는 인재를 선발한다. KT&G는 지원자의 인성, 역량 등의 다각적인 평가를 위해 합숙면접, 시뮬레이션 면접, 2회에 걸친 인성검사 등 차별화된 채용방식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모집분야는 KT&G가 일반, R&D, 영업 총 3개 분야이며 소망화장품은 재무·회계, 영업, 마케팅, 경영일반 총 4개 분야이다. 입사지원서는 KT&G 채용홈페이지(ktns.saramin.co.kr)와 소망화장품 홈페이지(www.somangcos.co.kr)에서 접수한다.

한돈, 전국 매장서 최대 50% 할인행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과 함께 전국 1600여개 매장에서 24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 건강식단 프로젝트! 한돈 웰빙부위로 건강식단 만들기' 캠페인(사진)을 개최한다. 한돈 웰빙부위를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에게 '건강한 국민고기, 한돈'을 부담 없는 가격에 제공하는 한편 지속적인 돈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세한 내용은 한돈닷컴(www.han-d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메이드 '이카루스' 파이널 클로즈 베타 테스트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게임 '이카루스(사진)'의 마지막 베타 테스트를 29일까지 실시한다. '이카루스'는 아름다운 그래픽, 탄탄한 스토리로 구성된 중세 유럽 스타일의 다중접속액션RPG 게임(MMORPG), 방대한 시나리오와 퀘스트, 전투를 도와주는 '펠로우 시스템', 실력을 겨룰 수 있는 '결투 시스템(PvP)', 다양한 난이도로 펼쳐지는 던전 등이 특징이다. 테스트에는 사전 모집을 통해 선발된 테스터들과 이카루스 기사단, 그리고 초대권을 이용해 등록한 이용자들이 참여한다. 한편, 29일까지 매일 게임에 접속하면 모니터, 피자, 이어폰 등 다양한 경품에 응모할 수 있는 행운권을 선물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f



애플이 새 '아이패드' 제품군을 공개하면서 태블릿PC 시장에 격랑이 일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예비부나 센터에서 열린 제품 발표회에서 '아이패드 에어'와 '2세대 아이패드 미니'를 소개하고 있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샌프란시스코(미국) | AP/뉴스

더 얇고, 더 선명해진 '아이패드 2중' 첫 선

애플 '아이패드 에어·2세대 미니' 공개
태블릿PC 시장 점유율 회복 여부 관심

애플이 '아이패드'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태블릿PC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예비부나 센터에서 제품 발표회를 갖고, '아이패드' 신제품 2종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글로벌 태블릿PC 시장에 또 한번 격랑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하락곡선을 그리던 애플이 신제품을 통해 다시 한번 시장을 장악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제품 '휴대성'과 '보는 맛' 뛰어나

이날 공개된 '아이패드' 신제품의 특징은 '휴대성'과 '보는 맛'이 좋아졌다는 점이다. 먼저 '아이패드 에어'는 제품명만큼이나 작아진 '4세대 아이패드'에 비해 휴대성이 크게 개선됐다. 두께는 7.5mm로 전작(9.4mm)보다 얇아졌고, 무게 또한 652g에서 469g으로 줄어 들었다. 화면 크기는 9.7인치로 유지하면서 베젤(테두리)을 줄인 점도 특징이다. 여기에 '아이폰5S'에 장착된 A7 프로세서를 달아 두 배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

'2세대 아이패드 미니'의 경우 전작보다 '보는 맛'이 더 좋아졌다. 애플의 자랑거리인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달아 해상도를 크게 높인 것. 이 제품의 해상도는 2048×1536, 화면밀

도는 326ppi(인치당 픽셀수)다. 이는 해상도가 1024×768에 화면 밀도가 163ppi였던 전작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이 제품 또한 A7 프로세서를 달았다.

●글로벌 시장 경쟁 가속도

애플이 크게 개선된 '아이패드'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시장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장 조사업체 IDC 등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분기 전 세계 태블릿PC 시장에서 1위를 유지했지만, 점유율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애플 신제품에 대한 반응이 호의적이어서, 일정부분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그리 낙관적만은 않다. 과거에 비해 경쟁 제품이 많아진 탓이다. 저가 태블릿PC 제품으로 애플을 위협했던 아마존은 최근 '킨드파이어HDX'를 선보였다. 구글도 '2세대 넥서스7'을 출시하며 경쟁에 나섰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하는 날 '서피스2'를 내놨고, 노키아 또한 같은 날 첫 태블릿 제품 '루미아 2520'을 공개했다.

한국 제조사들의 시장공략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 2분기 시장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리며 애플을 맹추격한 삼성전지도 다양한 제품으로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엔 2014년형 '갤럭시노트10.1'을 선보였다. LG전자도 최근 'G패드 8.3'을 출시하며, 글로벌 태블릿PC 시장 재공략을 선언했다.

김병근 기자 dioms@donga.com 트위터@kimyke76